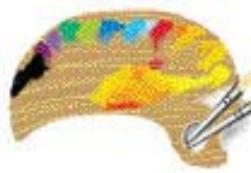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24> 명지미술관 '꿈 프로젝트'

“상실감·소외감 모두 지우고 이젠 꿈을 그려요”

“아버지가 어릴 적 돌아가셨는데 늘 아버지와 바다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닷가를 찾은 아버지와 저의 모습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미술 수업이라고 해서 그냥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건 줄 알았는데 난생 처음 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니까 진짜 화가가 된 것 같더네요.”

광주고룡정보산업고등학교(옛 소년원) 응접반 이정운(17·가명)은 지난 두달여 동안 매주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정운군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담양 명지미술관이 진행한 ‘꿈 프로젝트’. 처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만 해도 “시큰둥했던 정운군은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정운군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15명은 ‘미술’을 통해 아주 값진 경험을 했다. 사실, 학교에서는 미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띠는 건 조금은 딱딱한 ‘치료’라는 개념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진짜 주인공이 됐다는 점이다.

지난 2일 고룡정보산업고를 찾았을 때 아이들은 마지막 수업에 한창이었다. 화가 주홍씨 등 선생님들과 동그랗게 모여 앉은 아이들은 색색이 물들인 작은 나무 토막 위에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그려 나갔다. 가족들이 함께 살 커다란 집을 그린 아이도 있었고, 멋진 자동차를 그린 학생도 있었다.

‘꿈 프로젝트’는 ‘미술로 꿈꾸기’와 ‘드림 캐쳐(Dream Catcher)’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미술로 꿈꾸기’는 미술인들이 직접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는 강봉규(사진), 주홍(화가·미술치료사), 한희원(화가), 고근호(조각가)씨와 미술치료사 류정미씨, 명지미술관 학예사 채민희씨 등이었다.

미술인들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림 소재를 끌어내려 애썼다. 7가지 색깔의 캔버스 중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선택해 내가 누구인지 ‘여러가지 나의 모습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나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내도록 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화가와 조각가가 직접 만난 게 신기했던 모양이었다. 또 도화지가 아닌,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경험도 처음이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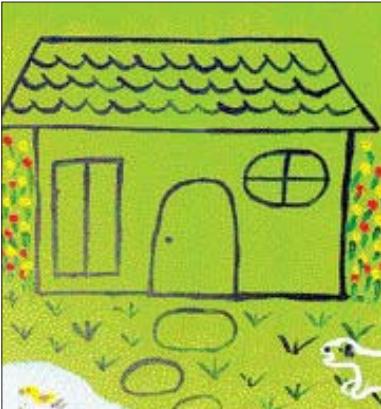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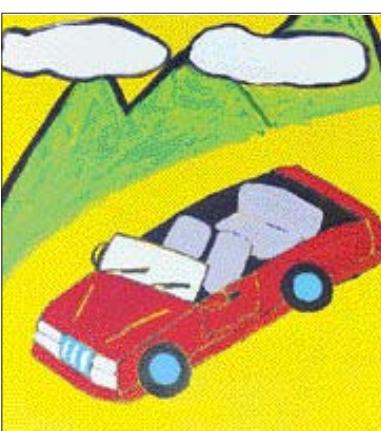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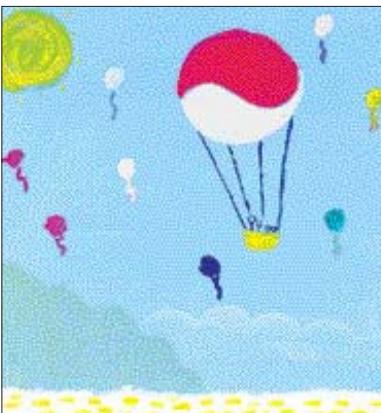
초창기 이번 프로그램이 낯설었던 아이들은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남들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듯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과감하게’ 봇질을 했고, 감춰뒀던 자신들의 ‘꿈’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측이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성과였다.



지난 2일 명지미술관이 광주고룡정보산업고에서 진행한 ‘미술로 꿈꾸기’ 프로젝트에서 참여작가 강봉규·주홍·한희원씨와 학생들이 완성된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미술로 꿈꾸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광주고룡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

미술인들 교정시설 찾아 아이들과 함께 ‘미술로 꿈꾸기’

치료·재능 발견 효과… 미술관·검찰청 등서 전시회도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해 낸다는 점이 중요하죠. 작가들이 자신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친구처럼 이야기하다 보니 아이들도 수업 시간을 기다리고, 성취감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강봉규씨는 “아이들이 자기 삶에 대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돌아보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전시회·드림 캐쳐(Dream Catcher)’는 아이들의 ‘꿈’이 담긴 그림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다. 학생들이 무엇보다 그림 그리기에 열심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그림이 멋진 미술관에 전시된다는 점이었다.

당초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린 작품을 직접 미술관에 디스플레이하는 작업까지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게 돼 아쉽기는 하지만 그림이 미술관에 걸린다는 사실만으로 뿐듯해 했다.

프로그램 책임 큐레이터 채민희 학예사는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실감, 소외감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통해 사회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1-383-25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화 연극 보러 오세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진위) ‘부부유별’ 수화 통역 공연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진위)가 문화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연극을 준비했다.

문진위는 오는 11일(오후 4시·7시30분)과 12일(오후 4시) 광주 5·18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리는 연극 ‘부부유별’을 수화 공연으로 진행한다.

극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 2명이 배우들의 대사를 일일이 수화로 통역, 좀처럼 연극을 접할 기회가 없는 청각장애인들도 쉽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극단 DIC 이 무대에 올리는 ‘부부유별’은 균대기에 빠져든 두상의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 알콩달콩 펼쳐지는 이야기로 윤희철·정순기·심성일·문진희·나윤정씨 등이 출연한다.

문진위는 그밖에 10월 문화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김미숙 하나 무용단의 한국 무용 ‘회소’(1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서울 공연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뮤지컬 ‘해드윅’(20일·5·18 기념문화센터), 평화연극제(8~11일·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를 진행 중이다. 문의 062-381-22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 나눔 현장, 알려주세요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 화난 일이 있을 때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하다 보면 아주 조금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이정우·가명)

전시회 ‘드림캐처’는 오는 22일부터 담양 명지미술관(11월 4일까지)에서 열린다. 미술관측은 학생들을 초청해 오프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아이들의 작품과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이후에는 광주지방검찰청(11월 5일~18일)에서 순회 전시회가 열리며 이어 고령정보산업고에서 전시(11월 19~23일)한 후 작품을 학교 측에 기증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책임 큐레이터 채민희 학예사는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실감, 소외감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통해 사회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383-2576.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광주경남지역본부

후원:

한국전력공사

제1회 전시회	제2회 전시회	제3회 전시회
234-3222	749,000	568,000
259,000	709,000	509,000
279,000	769,000	468,000
299,000	829,000	525,000
319,000	889,000	582,000
249,000	949,000	642,000
439,000	1,009,000	702,000